

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토론후기

외국의 사회적경제 추진동향

2012. 4. 16(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국의 사회적경제 추진동향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기관으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1년도 11차에 걸쳐 사회적경제 연구회를 운영하였고,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한 콜로키움이라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공무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을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은 그 첫 콜로키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이론 및 실천방안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사업의 발굴 및 정책지원 방안 등

2.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2년 4월 16일(월) 15:00~ 18:0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충남발전연구원)
 - 송두범, 김종수, 박춘섭, 홍은일(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신동호 연구위원(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부)
 - 원외
 - 김영관(충청남도청)외 15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 김성오 연구위원((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분석

- 장종익 교수(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 대학)

○ 토론

- 오 귀 복 교육위원장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 참석자 전원

3. 행사일정

▶사회 :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00~15:05	■ 개회 - 원장님 인사말
15:05~15:10	■ 콜로키움 소개
15:10~16:00	■ 발 제 -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 김성오 연구위원((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6:00~16:10	■ 휴 식
16:10~17:00	■ 발 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분석 : 장종익 교수(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 대학)
17:00~18:00	■ 종합토론 및 정리 - 좌장: 송두범 센터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정토론: 오 귀 복 교육위원장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 참석자 전원

◆ 김성오 제1차 발제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몬드라곤의 소개

- 유럽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이 많이 존재하고,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남유럽은 특히 전투적인 조합주의운동의 전통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다.
- 스페인 바스크의 몬드라곤은 인구 3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다.
- 몬드라곤은 기업집단이다. 하나의 가문이 아닌, 35,000명의 노동자가 주인으로 있다. 매출이 22조 규모이고, 8만5천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으며, 그룹은 크게 금융, 유통, 제조, 연구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 조직구조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26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20개정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니나, 그 외의 해외의 자회사들은 협동조합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평의회, 이사회가 핵심기구이며, 두 기관의 멤버 3분의 1이 중복되어 있다. 그럼에도 두 기구가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90년대 이전까지의 몬드라곤은 100개정도의 기업이 노동인민금고와의 연합협정으로 연결된 느슨한 기업집단이었다. 그런데 1991년 120여개 기업이 연합조직체제를 구축한다. 그것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MCC)이다. 체제구축의 가장 큰 이유는 유럽통합으로 인한 환경에 변화에 있었다.
- 몬드라곤의 주요품목은 백색가전으로, 매출의 70%가 내수, 30%가 수출이 차지하였다. 그런데 유럽통합으로 인해 관세가 없어지면서 다른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대응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또 하나는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 체제는 2006년까지 이어졌고, 2006년에 몬드라곤으로 또 한 차례 경영조직을 재편하였다.

몬드라곤의 고용구조

- 고용구조는 35,000명 정도의 조합원 노동자와 그 외 비조합원노동자들로 구성된다. 비조합원노동자의 대부분은 판매원이다. 해외지사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임금노동자이다.

몬드라곤의 역사

- 발제문 6페이지를 참조하면, 몬드라곤은 4,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 볼품없는 도시였다. 카톨릭의 호세신부는 이 작은 지역의 돈과 인력과 아이디어를 응집시켜서 협동조합 몬드라곤을 구축하였다. 그것을 하는데 15년이 걸렸다. 그는 지역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당시는 스페인 내전으로 피폐한 지역의 사람들을 단결시켰다. 이것이 출발점 이었다.
- 56년 첫 협동조합인 울고가 만들어졌고, 노동인민금고가 다음에 만들어졌다. 금고는 협동조합을 지원했다. 이러한 결과 60년대 초반 40개로 늘었다.

- 70년대 초반 주민자치를 시작했고, 몬드라곤은 바스크 주정부와 밀접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지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있다.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힘을 응집해서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협동조합의 3단계

- 1세대 협동조합운동은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반성에서 시작된다. 로버트 오웬의 방적공장이 그 예이다. 그러나 오웬 주도의 방적공장은 엄격하게 보면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
- 2세대 협동조합의 시발점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다. 1800년대 맨체스터 리버풀 등의 노동자밀집지대에서는 항상 생필품 공급이 부족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팍팍하게 했다. 그러던 중 로치데일의 노동자 30가정이 돈을 모아서 생산자와 교섭하기 시작한다. 바게닝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시작한 협동조합은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이러한 형태는 비단 소비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들의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져 간다. 현재의 존재하는 99%가 이러한 협동조합이다. 필요를 집단이 되어 채우는 형태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제현상이 되었다.
- 3세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회사와 구별이 안 된다는 반성인 레이드로의 보고서를 통해 시작된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동조합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의 대표적인 것이 환경문제, 고용문제 등이다.
- 특히 고용문제는 신규채용은 조합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몬드라곤은 매년평균 8·9%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에 비해 고용은 더 높은 비율로 창출해 내었다. 기존의 조합원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로 하였다.
- 몬드라곤의 노동자 수는 동일한 매출규모를 가진 기업과 비교하여 1.5배 수준이다. 그것은 이익배당을 줄이고, 고용을 늘린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의 경우, 비슷한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데(2008년의 경우), 정규직 5만명, 비정규직 1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몬드라곤은 고용창출능력을 보이는 데 이유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해서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용문제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각 지역별로 마을기업을 추진하려는 그룹들이 많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 장종익 제2차 발제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분석]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특징

- 유럽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 등의 연라협의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원칙으로 7가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 중,
 - 1) 자본보다 개인 및 사회적 목적이 우선한다는 점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진다는 점2가지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 이탈리아는 사회적경제부문중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전 산업적으로 고르다. 또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특징은
 - 다양한 부문에서 협동조합이 발전
 - 비정치적이지 않고, 종교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
-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레가에서는 최근까지 공산당과 사회당에서 추천된 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파시즘의 시기에는 많은 협동조합 파괴되었으나, 독일등과 같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조합들이 있었다.
- 협동조합연맹의 단위협동조합이 중소규모이고, 레가협동조합의 경우는 큰 규모의 단위협동조합이 많다.
- 또 협동조합상호지원기금 잘 발달되어 있다. 의무적으로 3%를 출원하도록 하였고, 연합조직에 출원하여 상호지원기금을 만들어냈다.
- 전통적협동조합은 ①이용자협동조합 ②노동자협동조합이다. ①에 속하는 것은 농협, 신협, 소비자협동조합 등이고, 생산·투입보다는 이용자협동조합이다. 이용자협동조합의 경우는 고용자가 조합원이 되기에는 어렵다. ②노동자협동조합은 생산과 자본이 같기에 고용과 연결이 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자본제공자, 서비스생산자, 서비스이용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협동조합 현황과 특징

- 에밀리아-로마냐주, 토스카나 주 등 중부이탈리아지역은 피렌체, 시에나, 피사, 볼로냐, 리미니 등 중세자치도시가 발달한 곳이었고 당시의 수많은 어소시에이션의 전통 속에서 일찍부터 자립적이며 기술 중시의 소규모 직공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하는 경제가 발전한 곳이다.
- 1945-1999년까지 자유주의적이고 좌익성향의 시장이 계속 집권하였으며, 노동자협동조합 및 농협의 밀집도가 강한 편이다.
- 에밀리아-로마냐주 지역에서는 주민 2명 중에 한 명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은 지역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 소매, 건설, 농업, 주택, 제조,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강한 편이다.
- 대규모 제조협동조합들은 생산품의 50-90%를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부문으로부터의 시사점

- 첫째,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정부에 계통조직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들간의 수평적, 수직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전통을 강력하게 수립해왔다는 점.
- 둘째,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제를 갖추고 더 나아가 협동조합연대기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는 점.
- 셋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발전경로의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점.
- 넷째,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제도 및 인센티브방안을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다는 점.

◆ 토론 요약

발제자 김성오, 장종익씨의 발제 후 지정토론자의 토론과 참석자로부터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오귀복(지정토론자,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교육위원장)

- 발표를 통해, 몬드라곤 노동자협동조합은 특징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었다는 점, 그리고 잉여를 고용에 돌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기업의 출발이 성직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르고, 성직자가 어떻게 지도력을 만들어 내고 확보하였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
- 노동금고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노동금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우리나라의 농협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 아이쿱생협 역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소통, 민주주의를 담보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몬드라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표현되고 확보되는지 알고 싶다.
- 협동조합에서는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사업체에 있어서는 빠른 경영판단이 필요하다. 몬드라곤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 소유자로서의 출자자, 생산자로서의 노동자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이익만을 창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하였는가? 아이쿱 역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사회 환원을 추구하고 있다. 생협금고, 자연드림파크 조성 등을 하고 있다.
- 아이쿱에서는 최근 대전지역에 교육센터를 오픈하였다. 1층에는 생협매장, 2층에는 의료생협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원래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으로 시너지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시너지효과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소규모로 활동하는 그룹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영관(충청남도 사회적경제 T/F 팀장)

- 충청도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조직은 협동조합이다. 관은 어떻게 협동조합과 연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알고 싶다.
- 또 하나는, 오늘 발제를 통해 신협 등의 금융분야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충청도에서는 신협 등의 금융분야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다.

• 박대호(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 앞서 말씀 중 슈퍼마켓의 점주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도 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볼로냐는 왜 성공적이고, 또 어떻게 협동조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지가 관심이 끈다. 또한 협동조합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김민숙(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팀장)**

- 몬드라곤은 고도성장기의 나타났던 협동조합의 사례인데, 저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할 수 있을까?
- 또한 이미 대기업의 지배가 확고한 사회에서 대안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협동의 원리를 배운 적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게 협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스페인에서는 협동조합이 친근한 문화인가? 일반화되어 있는가?

-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우리사회에서 제 2의 몬드라곤, 볼로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한국에는 아이쿱과 같이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을 기초로 한 소비자협동조합이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몬드라곤은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협동조합으로 인구의 80%이상, 볼로냐는 45%가 참가하는 협동조합이다. 아이쿱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단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 생협은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변했고, 생협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다. 지역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규모의 협력이 중요하다.
-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잘못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지도 모른다. 생태계가 만들어진 후 지원이 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많이 우려된다.
- 몬드라곤의 고용규모와 현대자동차의 고용규모를 단순한 생산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산업은 장치산업에 속하므로 고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바스크의 독특한 문화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본다. 도시중심의 역사, 길드의 역사 등이 몬드라곤의 탄생에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본다.
- 우리 지역 역시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는 온갖 모임이 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모임과 네트워크를 사회적경제와 연계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 **김성오(발제자)**

-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억은 세대를 걸쳐 진행되어 왔다. 깊은 협동조합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 고도성장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닌, 저성장기에 더욱 적합하다. 협동조합은 배당보다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형태이기 때문이다.
- 분명 바스크 사회가 가지는 문화의 영향은 크다고 본다.
-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한다면, 기존의 주식회사가 많이 전환할 것으로 본다. 분명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지만, 성공의 예도 많을 것이다.
- 몬드라곤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작은 군, 먼 단위의 지역에서 힘을 응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신탁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금융조직은 지역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를 내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 메뉴얼을 만들고, 그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몬드라곤은 조합원이 아닌 해외노동자들을 어떻게 배당권과 소유경영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몬드라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조합원화, 즉 정규직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경영목표로 삼고 진행중에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젊은 노동자들은 어떤 조직에 얹매이려 하지 않아 지지부진하다.
- 철저하게 위임경영을 한다. 위임된 경영권에 대해 가타부타하지 않으며, 평균 총회 참석률 30%정도 이나 이사회를 뽑을 때는 높은 참석율을 보인다.
- 현재 협동조합의 고용규모 1%이지만, 고용규모가 커져 5%, 10%가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 역시 많이 바뀔 것이다.
- 몬드라곤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몬드라곤이 글로벌화하면서 협동조합이 아닌 하나의 다국적기업으로 변하였다고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 **장종익(발제자)**

- 개인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그마한 개선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변화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 앞서 몬드라곤의 글로벌화를 비판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하나의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몬드라곤의 글로벌화는 몬드라곤의 생존전략이라고 보며,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협동조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협동조합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어릴때부터 사회적경제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사회를 추구하는 지금의 교육형태에서는 협동조합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

- 몬드라곤과 볼로냐와 같이 대규모 협동조합의 도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협동조합을 하면 잘될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치과, 자동차 서비스분야 등은 그 예이다. 또한 친환경분야 역시 성공한 예이다. 잘 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정책의 하나일 것이다.